

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<small>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</small> http://www.tta.or.kr	<h1>보도자료</h1>	ICT 표준화와 시험인증의 글로벌 리더
일시	2019.6.13(목) 배포 /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담당	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ICT융합산업단 김재은 팀장(031-780-9116), 정상국 책임(031-780-9119)	

“TTA, KMI 기상융합 기술 시험인증체계 구축에 맞손” -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-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업무협약 체결-

-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회장 박재문, 이하 ‘TTA’)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(원장 류찬수, 이하 ‘KMI’)과 2019년 6월 13일(목) TTA에서 기상융합 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 - TTA는 사물인터넷 제품·서비스 확산을 위한 국내외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을 판교 기업지원허브 ‘글로벌 IoT 시험인증센터’에서 지원하고 있으며,
 - KMI는 기상기술·서비스 및 관측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R&D 및 국가기상관측망을 관리하고, 기상산업 진흥과 기상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.

-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기상융합 기술개발, 표준화, 시험인증체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며 주요 협력 분야로는 기상융합 기술 시험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, 국내 기상융합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과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 - 양 기관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(부산EDC·세종5-1) 기상 서비스·관측망에 적용될 기상기후솔루션에 대한 ICT 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○ 향후, 기상장비의 관측품질 확보를 위한 기상장비 검정대상 확대 및 적합성 판정을 위한 성능시험제도를 도입하여 기상측정 관련 부품 성능, 안정성 시험·인증을 통한 기상융합서비스 품질 확보, 시장 안정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TTA 박재문 회장은 “4 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융합서비스 중의 하나인 기상융합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기상산업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 및 시험인증이 매우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면서

○ “기상산업은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정보통신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사회실현을 하는데 지속·유기적인 협력을 지원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

(左)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류찬수 원장 (右)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박재문 회장